

광주자원봉사박람회, ‘하나된 나눔의 힘’ 보여줬다

광주시, 역사민속박물관서 개최...시민 1000여명 참여
2만시간 봉사왕 8명에 공로패...체험부스 43개 운영

광주시는 지난 1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광주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원봉사박람회는 ‘스무 해의 기억! 함께 열어가게 내일!’을 주제로, 광주 자원봉사센터와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공동주관하고, 30여개 협력기관이 함께 했다.

박람회는 자원봉사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을 시작으로 광주시민 자원봉사 의식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기념식,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2만시간 이상 봉사에 헌신한 ‘자원봉사왕’ 8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이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개막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들고 함께 외치는 ‘희망 메시지 퍼포먼스’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메시지에는 ‘성취감, 삶의 나침반, 나눔, 보람’ 등 자원봉사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단어들이 포함됐다.

행사장에는 자원봉사 홍보물 전시, 제1안전 체험 교육,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별 특색에 맞춘 체험관, 기업·공공기관·대학·자원봉사단체 참여 홍보관 등 43개의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2025 광주광역시 자원봉사박람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희망메시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야말로 광주공동체를 지탱하는 힘”

이라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정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인도 인플루언서, 전남 웰니스 관광에 반하다

전남관광재단 ‘K-스톱오버’
인도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전남의 청정 자연과 웰니스 관광이 인도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남관광재단(대표이사 김영신)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김완수)와 공동으로 인도 대표 인플루언서 4명을 초청해 ‘K-스톱오버 전남관광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안공항 사고로 침체된 광주·전남 외래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남을 ‘스톱오버 여행지’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플루언서들은 완도, 목포, 해남, 영암, 여수 등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며 전남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주요 일정에는 △완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 프로그램 △목포 해상케이블카 탐승 △영암 고령 한복체험 △여수 세계섬박람회 사전 체험 등이 포함됐다.

인플루언서들은 각각의 콘텐츠를 촬영하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남도의 아름다움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



전남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공동으로 인도 대표 인플루언서 4명을 초청해 ‘K-스톱오버 전남관광 팸투어’를 진행했다.

유했다.

이번 팸투어에는 인도에서 활동 중인 여행·뷰티·레저 분야 인기 크리에이터 4명이 참여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280만 명을 보유한 살로니 미탈 (Saloni Mittal), 140만 명의 심런 발라제인 (Simran Balarjain), 유튜브 130만 명의 미탈

리 샤르마 (Mitali Sharma), 유튜브 140만 명·인스타그램 70만 명의 니하리카 제인 (Niharika Jain) 등이다.

이들은 전남의 자연과 음식, 전통문화뿐 아니라 K-뷰티와 K-라이프스타일까지 경험하며 “이곳이 진짜 힐링의 땅”이라며 감탄을 전했다.

각자의 SNS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팔로워들에게 전남의 관광지를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인도 인플루언서들이 전남의 자연과 문화, 웰니스 관광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도를 비롯한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홍보를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남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관광재단은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관광 플랫폼과 해외 SNS 채널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주한외국인 유튜브와 해외 서포터즈 네트워크를 확대해 전남 관광 콘텐츠의 해외 확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사) 함께하는 사랑밭, 취약계층에 ‘온정 나눔’

광주 서구 화정2동 식료품 키트 30박스 후원

광주 서구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서구 등에 따르면 최근 (사) 함께하는 사랑밭이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돌봄이웃을 돕기 위한 식료품 키트 30박스를 기탁했다.

지원 받은 식료품 키트 30박스는 화정2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과 돌봄이웃가정에 지원한다.

김형진 (사) 함께하는 사랑밭 광주전남 지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형숙 화정2동장은 “오랜 기간 묵묵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을 이어온 열정에 크게 감동했다”며 “따뜻한 마음을 서구 돌봄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 함께하는 사랑밭은 1986년 설립된 NGO 비영리법인으로 저소득장애 아동, 화상 환자, 난치병 환자, 위기가정을 위해 교육비, 치료비, 생활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해오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광주 광산구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2호점의 문을 열었다.

광산구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2호점 개소

‘우산권역’ 빛고을국민체육센터 3층...8억4000만원 투입

광주 광산구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2호점의 문을 열었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우산동 빛고을국민체육센터 3층에 자리한 건강관리소 2호점은 지난해 1월에 개소한 1호점(수안문화체육센터 3층)이 높은 이용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추가로 구축한 것이다.

광산구가 1호점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5% 이상(9월 기준 누적 이용자 수 3203명)을 기록했다.

이에 광산구는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100세 시대 지역사회 건강관리(커뮤니티 헬스케어)’의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 광주시 특별교부금 8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건강관리소 2호점은 기초체력, 근골격, 보행, 인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건강 실증 장비 16종과 ‘건강복

합커뮤니티’ 공간을 갖췄다.

정밀하게 측정 분석한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처방과 연계한 주민의 일상적·예방적 자가 건강관리를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운동, 식단, 사회관계 등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처방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적처방협의체’와 광산구가 양성한 건강활동가 등과 협업체 주민의 사회적 처방 실천, 건강 변화 측정, 사후관리 등을 밀착 지원한다.

현재 광산구 건강관리소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서울시 복지재단, 일본 6개 연구소 연립팀 등 국내외 20여 곳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전남실내체육관에서 (사) 전국이·통장연합회 여수시지회와 섬박람회 입장권 1300매 사전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지역사회 입장권 구매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여수시지회, 1300매 구매 약정

(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전남실내체육관에서 (사) 전국이·통장연합회 여수시지회와 섬박람회 입장권 1300매 사전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전국이·통장연합회 여수시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 정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민원 및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다.

이번 입장권 구매는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취지로 추진됐다.

또 이번 약정은 여수 농우회, 농업인단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이어 체결된 네 번째 사례로,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조직위원장인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역사회의 폭넓은 동참이 섬박람회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전남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문체부 장관상

전국 최대규모·생활밀착형 문화정책 모델 인정

(재) 전라남도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의 ‘구석구석 문화배달-문화요일’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가 있는 날’ 추진 우수사례’ 시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 실정에 맞춘 생활형 문화정책 모델과 전국 최대 규모 운영, 높은 주민 만족도를 인정받은 결과다.

전남은 농어촌·도시·산촌 등 문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문화 인프라 확충이 꾸준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재단은 2024년부터 도내 13개 시·군 전역에서 ‘문화로 빛나는 오늘-문화요일’이라는 주제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요일별 테마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의 ‘힐요일(문화백신)’, 화요일의 ‘여행요일(문화정거장)’, 수요일의 ‘별요일(아간게장)’, 목요일의 ‘원요일(Time Out)’, 금·토요일의 ‘숲·갯요일(문화레저)’, 일요일의 ‘놀요일(모두의 공원)’ 등 요일 마케팅을 통해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일상적 문화 기반을 마련했다.



예산은 지난해 14억3000만원에서 2025년 15억6000만원으로 확대, 2년 연속 전국 최고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남은 문화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재단은 광역과 기초,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거버넌스를 사업의 동력으로 꼽았다. 특히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경남 수해단체와 ‘구석구석 가로질라!’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광역 간 연대 모델을 확장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